

##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참여 영향요인 분석

권 유 홍\*

### Estimating Determinants of Leisure Participation of Female Immigrants for Marriage Residing in Urban Area

Yoo-Hong Kwon\*

**요약 :**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밝혀 여가복지 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예측변인은 북미지역의 소수민족에 대한 여가연구와 국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문화적응(언어적응, 사회적 적응, 국내 거주기간), 사회경제적 특성(교육·소득수준), 그리고 기타 개인적 특성(연령, 남편과의 나이차, 자녀 수)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10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총 41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결과,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은 가정여가활동, 사교활동, 야외활동, 운동, 문화활동, 오락활동 순으로 여가에 참여하고, 이러한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문화적응 중 사회적 적응과 언어적응,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 가운데 교육과 소득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 수 및 남편과의 나이차는 소수 여가활동에 제한된 영향을 미치며, 국내 거주기간과 이주여성의 연령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적극적 여가참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여가참여, 도시 거주, 문화적응, 사회경제적 특성

**ABSTRACT :**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s between acculturation(measured by language proficiency, social contacts with Koreans, and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socio-economic status(education and income), individual characteristics(age, age gap with husband, and number of children), and leisure participat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residing in urban are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on data generated from 418 foreign Korean wives from China, Mongolia, Vietnam, and the Philippines. Results showed that variations in leisure participation were largely due to different acculturation level and socio-economic status. Length of residence and age were not significant correlates of leisure-time activity. Practical implications and research recommend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female immigrants for marriage, leisure participation, urban residence, acculturation, socio-economic status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이벤트경영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nvention and Event Management, 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 E-mail: yoohong@hallym.ac.kr, Tel: 02-557-4253

## I. 서론

21세기 들어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 사이에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크게 늘어나고, 저출산 담론이 떠오르면서 논의의 초점은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다문화가정에 모아지는 듯하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최병두 외, 2011). 하지만 적응의 문제를 남편, 시부모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는 데 치우쳐 이주여성의 여가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여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요,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자유일 뿐만 아니라(Livengood and Stodolska, 2004) 이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Hibbler and Shinew, 2002; Yu and Berryman, 1996) 여가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소수에 대한 심층면접 또는 초점집단면접(권유흥·고봉찬, 2011; 송영민 외, 2011; 차성란, 2010), 그리고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여가실태를 파악(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호남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2008; 차성란, 2010에서 재인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특정 사례나 특정 지역 중심의 연구는 해당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참여 실태 및 그와 관련된 변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도시와 농촌은 생활여건이 다르고, 이주 여성의 교육수준, 한국어 실력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김승권 외, 2010; 설동훈·윤홍식, 2008; 양옥경 외, 2007) 도시와 농촌 거주자를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보통 다문화 가족 하면 한국 남성과 동남아시아 여성으로 이루어진 농촌가족을 떠올리지만(김병조 외, 2011), 전체 이주여성의 80% 이상은 도시에 거주하여(최병두 외, 2011)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도시 거주 이주여성의 여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여러 변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이주여성의 여가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여가복지정책의 수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결혼이주여성은 결혼과 이주라는 두 가지 문화충격을 동시에 겪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 출신이며, 사회적 지위가 낮은 한국남성과 결혼하였다는 인종적·사회적 편견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한건수, 2006; 박은미·이곤수, 2009). 다민족사회인 북미지역에서는 1960년대부터 소수민족의 여가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사회에서 불평등의 주요한 원천은 인종과 성(gender), 사회적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 세 가지 변인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소수민족의 여가가 탐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연구자(Hibbler and Shinew, 2002; Shinew et al., 2006)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및 정착과정은 가족이민이 주류인 북미지역과는 그 양상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북미지역의 연구성과를 소수민족의 여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국내

에는 이주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사결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1. 북미지역의 선행연구 검토

인종 간 불평등에 대한 관심으로 초기에는 주로 백인과 흑인 간 여가참여에서의 차이를 규명한 소수민족의 여가연구(Floyd et al., 2008; Freysinger and Harris, 2006; Gramann and Allison, 1999)는 Washburne(1978; Gramann and Allison, 1999와 Gomez, 2002에서 재인용)의 민족성가설과 주변성가설<sup>1)</sup>로 이론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민족성가설이 다소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연구결과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두 가설의 설명력 또한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심재명, 2009, 2011; Freysinger and Harris, 2006; Gramann and Allison, 1999).

여가참여에 관한 비교연구의 대상이 점차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동시에 왜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밝히기 위한 이론화가 모색되었다. 여가제약(constraints), 차별(discrimination), 접촉(contact theory), 사회정의(social justice), 지각된 편익(perceived benefits), 동화(assimilation)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여가활동에서의 차이를 인종이나 민족문화집단(ethnocultural group) 간에 단순 비교를 하기보다는 이민자의 적응과정에 초점을 맞춘 동화 및 차별 인지(perceived discrimination) 패러다임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민자에 대한 여가제약 연구는 민족문화집단 간 여가 비교연구와 별개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

는 이론이나 방법론적 측면에서 통합되고 있으며<sup>2)</sup>(Shinew et al., 2006), 언어, 차별, 편견,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족 등 소수민족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겪는 일부 제약요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1990년대부터는 인종과 사회계층의 상호작용은 물론 성(gender)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수를 함께 사용하여 여가참여의 차이를 밝히려는 연구 또한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문화적응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적응은 이주 역사가 길지 않은 민족문화집단의 여가 연구에 보다 적합하며(Floyd, 1998), Stodolska(1998)는 이주자들이 주류사회에 적응하면서 여가제약의 중요성이 달라지므로 시간의 경과와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 정도가 이주자 여가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이주자들이 경험하는 언어능력의 부족, 문화적 차이, 소외감, 경제력 부족, 여가 시간 및 동반자·정보·시설의 부족, 교통 불편(권유홍·고봉찬, 2011; Rublee and Shaw, 1991; Stodolska, 2000에서 재인용) 등의 여가제약은 대부분 문화적응 및 사회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변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 1) 문화적응 수준과 여가참여

문화적응(acculturation: 문화접변 또는 문화변용이라고도 함)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들이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서 본래 가지고 있던 문화형태가 변화하는 현상”(Redfield et al., 1936)을 말한다. 이주

1) 민족성가설은 여가참여에 있어서 민족 간 차이는 문화적 차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주변성가설은 빈곤 등 사회경제적 차이와 여가자원의 부족 때문에 소수민족의 여가참여가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2) 소수민족에 대한 여가 연구는 근본적으로 소수민족이란 특성이 여가참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여가제약의 관점을 갖고 있다(심재명, 2011: 175).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유사한 개념으로 동화(assimilation)나 적응(adaptation) 등의 용어가 발견된다. 하지만 동화는 개인이나 집단이 본국에서 가졌던 문화 정체성을 버리고 주류사회에 합류하는 것을 뜻하며, 적응은 이주사회 적응에 관한 개념들을 통합한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최병두 외, 2011).

문화적응을 중심으로 이주자의 여가를 파악한 북미지역의 연구는 1990년대부터 주로 발견된다. 초기에는 여가참여나 방문지역에서의 차이 규명에 조사가 집중되었으나 점차 여가제약, 여가동기 등과의 관계로 연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Floyd and Gramann(1993)은 멕시코계 미국인의 문화적 동화(영어의 선호와 사용으로 측정) 또는 구조적 동화(여행 또는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친구의 민족 집단으로 측정)의 수준이 높아지면 대부분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빈도가 앵글로계 미국인과 비슷해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야외 레크리에이션 지역 방문빈도에서의 차이는 구조적 동화수준에 따라서만 나타났는데, Floyd and Shinew(1999)도 백인과 흑인 간 상호접촉이 많은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두 집단의 여가선호에 유사성이 많다고 하여 사회적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Stodolska(1998)는 동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여가제약의 중요성이 감소한다고 했으며, 특히 구조적 동화나 행동수용적 동화(차별 경험의 빈도로 측정)가 문화적 동화보다 더 많은 제약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Floyd and Gramann(1995)의 연구에서는 스페인어 구사 능력이 낮고(문화적 동화 수준이 높고), 교육(사회경제적 동화)수준이 높을수록 멕시코계 미국인이 지각하는 레크리에이션 지역에서의 차별은 낮지만, 주류사회 친구 접촉(구조적 동화)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문화적응은 특히 신체적 여가활동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Yu and Berryman(1996)은 미국 내 중국계 청소년들의 경우, 문화적응(언어, 음식, 사고 등 다양한 항목으로 측정)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이나 여가 관련 기관, 조직에 더 많이 참가하며, 특히 스포츠 활동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Abraido-Lanza et al.(2005) 또한 라틴계 미국인 대상의 연구에서 적응수준이 높은(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15년 이상 거주)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체적 여가활동이 활발하다고 하였다. Evenson et al.(2004)은 히스패닉계 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언어사용으로 측정)과 거주기간, 이주한 연령에 따른 신체활동 수준을 측정하였는데, 문화적응 수준이 높거나 25세 미만일 때 이주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활동적이며, 미국 내 거주기간과 신체활동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Liu et al.(2009)은 히스패닉계 미국인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문화적응을 이민세대수와 가정 내 사용 언어로 측정한 결과, 적응수준이 높을수록(이민세대가 2세대, 3세대로 내려가고, 가정 내에서 영어를 사용할수록) 신체활동 수준이 권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적어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을 통제하면, 적응 수준에 따른 차이는 감소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문화적응이 여가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Shaul and Gramann(1998)은 히스패닉계 미국인 대상의 연구에서 교육과 소득수준, 그리고 자녀 수를 통제할 경우, 문화동화(언어의 이해와 사용으로 측정)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가족 관련 편익을 보다 중요하게 지각

하며<sup>3)</sup>, 이는 가족 관련 편익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 차이가 문화적 요인보다 인구통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Hosper et al.(2007)은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젊은 터키인(15~30세) 대상의 연구에서 문화적응(문화적 지향성과 사회적 접촉으로 측정) 수준이 높아지면 여가시간에 신체적 활동이 활발한 경우는 자녀가 없고, 육체노동을 직업으로 갖지 않으며, 좋은 환경의 동네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문화적응이 신체적 여가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 2) 사회경제적 특성과 여가참여

교육과 소득 수준, 직업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특성(SES: socio-economic status)과 여가참여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Stamps and Stamps, 1985; Lee et al., 2001에서 재인용). 예를 들면, Bultena and Field(1978)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국립공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관련 변인의 예측력은 교육, 직업, 소득 순이라고 하였다. Walker and Kiekolt(1995)는 야생보존지역(wilderness) 이용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높은 교육수준이라고 하였으며, Floyd et al.(1993)은 멕시코계 미국인 대상의 조사에서 교육수준이 문화적응 관련 변인(영어의 선호와 사용으로 측정)보다 야외 레크리에이션 지역 방문을 더 잘 설명한다고 하였다. Kelly(1980, 1996; Lee et al., 2001에서 재인용) 또한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교육수준은 소득이나 직업보다 우수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특히 그는 소득과 직업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가

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교육수준은 여가사회화 및 여가에 대한 관심 또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깨우치는 데 보다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야외 레크리에이션은 물론 도시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예측변인으로서 중요하고(Woodard, 1988; Juniu, 2000에서 재인용),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제약을 낮게 지각한다는 사실은 Crawford et al.(1991), Carroll and Alexandris(1997) 등 많은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 또한 Stodolska and Alexandris(2004)는 미국 내 한국 및 폴란드계 이주자 대상의 조사에서 정착 초기를 지난 후에는 이주자들이 속한 사회계층과 민족적 배경이 스포츠 활동 참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Juniu(2000)도 남미 이주자들의 적응과정을 조사하면서 민족성보다는 사회계층이 여가행동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지표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Floyd et al.(1994)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계층(class awareness)이 개인의 여가활동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 3) 다양한 영향변인과 여가

북미지역 여가학에서는 사회에 내재한 불평등한 요소들에 주목하고, 사회적 계층, 인종, 그리고 성(gender)을 중심으로 여가 연구를 진행해 왔다. 또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연령, 성, 민족,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지위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노인학의 다계층시각(multiple hierarchy stratification perspective)이 소개되면서 소수민족의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3) 히스패닉계 미국인은 다른 백인들보다 가족이나 친척들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r and Williams, 1993; Shaul and Gramann, 1998).

변인의 결합효과 또는 변인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2001; Riddick and Stewart, 1994).

Lee et al.(2001)은 인종, 성, 연령, 교육, 소득이 야외 레크리에이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젊은 고학력 고소득 앵글로계 백인의 참여가 가장 높은 반면, 노년의 저학력 저소득 소수민족이 가장 낮다고 하였다. Johnson et al.(1998)은 인종과 성, 연령은 물론 인종, 빈곤의 상호작용이 야생 지역 방문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수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그들은 가난한 흑인들이 소득이 높은 흑인들보다 야생지역을 더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지역과 여가활동의 유형별로 세부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Crespo et al.(2001)은 멕시코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언어 선호와 거주기간으로 측정)이 여가시간의 신체적 비활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문화적응 수준이 낮으면(스페인어 단독 또는 영어와 함께 사용자, 거주기간 5년 미만 또는 멕시코 출생자) 신체적 비활동성이 높다고 하였다. 하지만 직업은 중요한 예측변인이 아니며, 신체적 비활동성은 노인, 12년 미만의 교육수준, 2만 달러 이하 소득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하지만 Son(2008)은 5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여가활동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예시한 연구결과는 물론, 사교적 여가나 집안 내 또는 가족 여가활동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적지만, 연령이 많아지면서 야외 레크리에이션과 신체적인 여가활동이 감소한다는 Kelly(1980; Lee et al., 2001에서 재인용)의 주장과도 다른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Barnett(200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종과 성, 성격, 감성 스타일, 동기성향이 여가활동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성격과 감성 스타일, 동기성향의 영향력이 큰 반면, 인종과 성은 대부분의 여가활동에서 단독 혹은 상호작용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였다. Arai and Kivel(2009) 또한 인종과 민족, 성, 연령은 물론 사회적 역할, 그룹 간 관계, 불평등 등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변수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2. 국내 관련 연구 검토

국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여가를 본격적으로 다룬 문헌은 많지 않다. 권유홍·고봉찬(2011)은 결혼이주여성이 심리적 위축과 부담감, 여가 동반자의 제한, 여가시간과 경제력, 여가정보, 여가시설의 부족, 그리고 교통 불편 등의 여가제약요인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요인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 한국과 이주여성의 출신국가 간 문화적 차이, 이주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 및 남편과 관련된 사항(남편의 권위적 태도, 남편과의 나이차, 남편의 적은 수입 및 경제권 독점 등)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파악한 김승권 외(2010)에 따르면, 전체 이주여성의 평균 연령은 33.3세로 배우자(43.2세)보다 10세 정도 어리다. 특히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나이차가 17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인과의 현격한 나이차는 남편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함으로써 외출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내의 여가욕구를 무시하는 권위적 태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권유홍·고봉찬, 2011).

송영민 외(2011)는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결혼 이주여성의 여가를 분석하였다. 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를 겪게 되고, 부정적 시선 및 편견, 이웃과의 단절 등으로 소외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주 초기에는 혼자 즐길 수 있는 수동적 여가나 시댁 방문과 같은 사적 영역으로 여가활동이 제한되지만,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여가관계를 추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문화적응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실태를 파악한 연구도 있다. 권유홍(2011)은 Berry의 2차원 모형에 따라 여가행태를 살펴보았는데, 통합유형 집단이 모든 여가유형에서 여가활동 선호와 참여의 강도가 강하고, 주변화유형이 가장 약하며, 동화유형과 분리유형 집단은 중간 수준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유형 집단 간의 차이는 연령이나 소득이 아니라 교육수준, 자녀 수, 남편과의 나이차, 체류기간 등에 따라 나타난다고 하였다.<sup>4)</sup> 하지만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7)의 조사에서는 이주여성의 연령이 낮고,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가족 여가활동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 지리학자인 최병두 외(2011)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지역사회 생활, 이웃관계, 공간 인지와 공간 활동으로 나누어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지역사회 적응에 유효한 영향력을 미친 변수는 배우자의 직업, 한국인 친구 수,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 출신 국가(중국, 캄보디아)뿐이고, 한국어 능력은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한편 한경미·황덕순(1990; 윤인진·김상운, 2005에서 재인용)은 가족 또는 자녀가 많고, 막내가 어리며, 본인의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부의 여가참여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김승권 외, 2010)에 따르면, 국내 결혼이주여성은 61.6%가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들은 대부분(91.6%) 12세 미만으로 어리고, 전체 이주여성의 11.3%가 임신 중에 있기 때문에 자녀 수, 자녀의 연령 등은 여가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문화적응과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일부 인구통계적 요인이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문화적응의 경우, 다양한 척도가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언어와 관련된 항목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주류사회와의 접촉 정도, 이주한 국가에서의 거주기간 등도 주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을 측정하는 변인 중 교육과 소득수준은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직업은 이주여성 가운데 취업자가 36.9%에 불과하고(김승권 외, 2010), 전일제보다 시간제 근로자가 더 많아(권유홍, 2011) 예측 변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남편들의 직업도 사무직이나 전문직, 관리직 등의 비율은 모두 합하여 16%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서비스(32.5%)나 단순노무직(21.6%)이라는 특성이 있다.

기타 개인적 특성으로는 이주여성의 연령, 남편과의 나이차, 그리고 자녀 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연령은 조사에 따라 여가참여나 관련

4) 통합유형은 대졸, 자녀 2명 이상, 남편과의 나이차는 10세 이하, 국내 거주기간은 5년 이상에서 많이 나타난 반면, 주변화유형은 고졸 이하, 자녀가 없고, 남편과의 나이차는 11세 이상, 거주기간은 2년 이상~5년 미만에서 많았다.

5) 한 가지 영역에만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연령, 국내 출신 국가의 친구, 현재 거주지역, 본국에서의 직업 등이 있었다.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sup>6)</sup>, 중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거나(Johnson et al., 1998; Son, 2008) 65세를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Lee et al., 2001; Riddick and Stewart, 1994)가 많아, 이주여성의 대부분이 젊은 여성으로 구성된 국내 현실에서는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주시점 연령의 경우, 북미지역의 이민자 연구에서는 중요하게 고려하나(Chia and Costigan, 2006; Evenson et al., 2004), 주로 20대에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국내 상황에서는 중요한 예측변인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다. 이주여성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출신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순이다(김승권 외, 2010).

연구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중국 한족, 몽골,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중순부터 11월 하순 사이에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시에서 실시되었다. 일본 출신 여성은 대부분 특정 종교집단의 알선에 따라 결혼하였고, 중국 동포는 다른 이주여성과는 달리 언어소통이 자유롭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신 몽골 출신 여성을 포함한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과 동남아 출신의 결혼

이민여성을 표본에 고루 포함하려 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주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수업을 마친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다문화센터 교육에 참여한 몽골과 필리핀 출신의 여성이 많지 않아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이용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총 70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sup>7)</sup>, 읍·면지역에 거주하거나(125부) 교육 또는 소득수준을 기입하지 않은 설문지(165부)를 제외한 418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설문지 작성 및 분석방법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문화적응 및 여가참여의 수준, 그리고 인구사회적 특성 등을 파악하도록 구성하였다. 먼저, 문화적응은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언어적응(말하기와 읽고 쓰기)과 사회적 적응(주류사회와 관계유지 및 접촉 선호), 그리고 한국 내 거주기간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적응에 대한 질문은 MEIM(Gurung and Mehta, 2001에서 재인용)과 EAAM(Barry, 2001)을 참조해 작성했고, 언어와 사회적 적응의 응답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 그리고 거주기간은 직접 기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여가참여는 여가백서(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를 바탕으로 북미지역의 선행연구(Floyd and Shinew, 1999; Iso-Ahola et al., 1994; Lee et al., 2001; Stodolska, 2000)를 참조해 20가지 여가활동을 선정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이러한 활동의 참여빈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1

6) 예를 들면, Floyd et al.(1993)과 Son(2008)의 연구에서는 연령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Johnson et al.(1998)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이었으며, Floyd and Gramann(1995)의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여가상황에서 차별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7)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서울(202부), 인천(33부), 경기(성남/부천/안산/평택/오산/광주/화성/이천/의정부/파주, 소계 264부), 충청(청주/청원/아산/보령, 소계 117부), 호남(군산, 64부), 영남지역(대구, 28부)에서 회수된 것이다.



점)에서 ‘가끔 한다’(3점), ‘매우 자주 한다’(5점)의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여가활동은 적극성과 활동 공간(실내·실외, 집 근처·원거리) 등을 고려해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나, 일상적 활동(예를 들면, TV·DVD 시청, 라디오 듣기, 전화통화)은 제외하였다(Floyd and Shinen, 1999). 그리고 여가유형은 활동의 내용 및 공간을 중심으로 Iso-Ahola et al.(1994), Stodolska(2000) 등의 연구를 참조해 야외활동(여행, 소풍), 운동(실내, 실외 운동), 문화활동(영화·공연, 박물관·전시회), 가정여가활동(음악, 독서, 학습, 요리, 인터넷, 산책), 사교활동(외식, 쇼핑, 친구·친척방문, 목욕·찜질방), 오락활동(음주, 카드·고스톱, 노래방, 컴퓨터게임)으로 구분하였다.

인구사회적 특성은 소수민족 여가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및 소득수준(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이주여성 본인의 연령, 남편과의 나이차, 자녀 수, 거주지역과 같은 개인적 특성<sup>8)</sup>을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한글로 작성한 후 4개국 언어로 번역하였고, 이를 다른 번역자가 한글로 재번역하면서 비교·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17.0을 사용해 요인 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표본의 특성

분석 대상자(418명)에는 몽골(118명)과 중국(114명) 출신이 다소 많았고, 필리핀 출신(83명)

은 적었으며, 베트남 출신 여성은 중간수준(103명)이었다. 연령은 20대(41.4%)와 30대(39.5%)가 대부분이었고, 고등학교(41.4%)와 대학교 졸업자(40.0%)가 많았다. 한국 내 거주기간은 5년 미만(56.0%)이 5년 이상(44.0%)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월간 가구 소득은 200만원 이상(46.0%)과 100만원대(41.9%)가 많았고, 자녀는 1명(43.1%), 2명 이상(38.2%), 없음(18.7%) 순이었다. 남편과의 나이차는 10세 이하(52.4%)와 11세 이상(47.2%)의 비율이 유사하였다(〈표 1〉 참조).<sup>9)</sup>

〈표 1〉 표본의 특성

| 구 분        |            | 빈도  | 구성비(%) |
|------------|------------|-----|--------|
| 출 신<br>국 가 | 중국         | 114 | 27.3   |
|            | 몽골         | 118 | 28.2   |
|            | 베트남        | 103 | 24.6   |
|            | 필리핀        | 83  | 19.9   |
| 연 령        | 20대        | 173 | 41.4   |
|            | 30대        | 165 | 39.6   |
|            | 40대 이상     | 79  | 18.9   |
| 학 력        | 중졸 이하      | 78  | 18.7   |
|            | 고졸         | 173 | 41.4   |
|            | 대졸         | 167 | 40.0   |
| 월소득        | 100만원 미만   | 51  | 12.2   |
|            | 100만~199만원 | 175 | 41.9   |
|            | 200만원 이상   | 192 | 45.9   |
| 자녀 수       | 없음         | 78  | 18.7   |
|            | 1명         | 180 | 43.1   |
|            | 2명 이상      | 160 | 38.2   |
| 남편<br>나이차  | 0~10세      | 219 | 52.4   |
|            | 11세 이상     | 197 | 47.1   |
| 거주<br>기간   | 5년 미만      | 234 | 56.0   |
|            | 5년 이상      | 184 | 44.0   |

주: 연령, 남편과의 나이차에서 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았음

8)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지 않은 모든 자료는 〈표 2〉의 구분에 따라 더미변수로 입력하였다.

9)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김승권 외, 2010)의 중졸 이하(36.1%), 100만원 미만(21.5%), 자녀 있음(61.6%)과 비교할 때 본 조사의 표본은 교육과 소득수준, 그리고 자녀를 가진 비율이 다소 높다는 특성이 있다.

##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문화적응 중 언어와 사회적 적응 측정항목들에 대한 타당성과 내적 일관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타당성 검증을 위해 직각회전에 의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했으며, 각 요인은 '언어적응'과 '사회적 적응'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구성 개념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hronbach's  $\alpha$  값은 0.7 내외로서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었다.

여가유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 및 여가활동의 특성(내용 및 활동 공간 등)을 감안하여 야외활동, 운동, 문화활동, 가정여가활동, 사교활동, 오락활동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응답 자료의 신뢰도만을 확인하였다. 야외활동, 운동, 가정여가활동, 사교활동에 대한 조사 자료의 신뢰도는 모두 0.7 이상이었으며, 나머지 두 유형 또한 0.6 이상으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2> 참조).

<표 2> 문화적응 척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 구 분             | 적 재 값              |                     | Cronbach<br>$\alpha$ |
|-----------------|--------------------|---------------------|----------------------|
|                 | 요인 1<br>(언어<br>적응) | 요인 2<br>(사회적<br>적응) |                      |
| 한국어 자유롭게 말하기    | .832               | .315                | .774                 |
| 한국어 자유롭게 읽고 쓰기  | .905               | .155                |                      |
| 한국인과 잘 어울림      | .333               | .778                | .680                 |
| 한국인과의 교제가 편안함   | .137               | .893                |                      |
| 고유값(eigenvalue) | 1.642              | 1.525               |                      |
| 분산추출값(누적 %)     | 41.057             | 79.181              |                      |

## 3. 분석결과

### 1)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참여

결혼이주여성은 가정여가활동(M=3.61)과 사교활동(M=3.31)을 비교적 자주 하고, 오락활동(M=2.16)과 문화활동(M=2.68)을 자주 하지 않으며, 야외활동(M=3.09)과 운동(M=2.98)은 중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참여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즐겨하는 활동은 요리와 학습, 음악감상이었으며, 가장 참여가 낮은 활동은 음주와 고스톱·카드놀이였다. 또한 목욕·찜질방 가기와 인터넷, 여행에서는 응답자 간 차이가 비교적 크고, 친구·친척방문과 음주, 음악감상, 외식, 쇼핑에서는 차이가 작다는 특성이 있었다(<표 3> 참조).

### 2) 여가참여 영향변인 검증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기 위해 위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설명력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독립변수만으로 구성된 회귀식을 발견하는 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이학식·김영, 2001). 독립변수는 1단계에 문화적응 관련 변인(사회적 적응, 언어적응, 거주기간), 2단계에 사회경제적 특성(교육과 소득수준),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 기타 개인적 특성(연령, 남편과의 나이차, 자녀 수)을 입력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sup>10)</sup>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공선성 통계량에서 공차한계는 .701에서 .967, VIF는 1.034에서 1.426 사이로 나타나 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Durbin-

10) 야외 여가활동 참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경제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문헌에서 확인되나, 포괄적 여가참여 연구에서 세 가지 연구개념 간 설명력의 크기를 비교한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특히, 국내 이주여성은 결혼을 위한 단독 이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서양의 이민자들과 현실적 여건이 다르므로 독립변수의 입력 순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설정하였다.

〈표 3〉 여가참여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 구 분        |         | 여가참여 |       |            |
|------------|---------|------|-------|------------|
|            |         | M    | S. D. | Cronbach α |
| 야외활동       | 소 풍     | 3.27 | 1.085 | .800       |
|            | 여 행     | 2.91 | 1.219 |            |
| 운 동        | 실 내     | 2.97 | 1.102 | .763       |
|            | 실 외     | 2.99 | 1.125 |            |
| 문화활동       | 영화·공연   | 2.81 | 1.144 | .683       |
|            | 박물관·전시회 | 2.56 | 1.105 |            |
| 가정여가<br>활동 | 음악감상    | 3.74 | .981  | .713       |
|            | 독 서     | 3.26 | 1.093 |            |
|            | 학 습     | 3.76 | 1.072 |            |
|            | 요 리     | 3.77 | 1.065 |            |
|            | 인터넷     | 3.51 | 1.220 |            |
|            | 산 책     | 3.65 | 1.010 |            |
| 사교활동       | 외 식     | 3.26 | .982  | .708       |
|            | 쇼 핑     | 3.55 | .988  |            |
|            | 친구·친척방문 | 3.47 | .938  |            |
|            | 목욕·찜질방  | 2.96 | 1.265 |            |
| 오락활동       | 음 주     | 1.77 | .959  | .639       |
|            | 고스톱·카드  | 1.80 | 1.021 |            |
|            | 노래방     | 2.68 | 1.054 |            |
|            | 컴퓨터게임   | 2.38 | 1.145 |            |

Watson 또한 여가유형별 분석에서 1.540과 1.734 사이에 있어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적합한 회귀모형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를 여가유형별로 살펴보면, 야외 활동 참여에서는 입력한 3단계 결정요인 가운데 마지막 단계로 입력한 기타 개인적 특성을 제외한 문화적응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여가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4개 독립변수들의 야외활동 참여에 대한 설명력은 약 16%로 나타났다. 소득수준(.191)과 사회적 적응(.190)이 비교적 강한 영향을 미치며, 교육수준(.163)과 언어적응(.114)의 영향 또한 발견되었다. 문화적응 관련 변수 중에

는 국내 거주기간이 최종 분석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운동 참여에는 사회적 적응과 사회경제적 특성(교육과 소득)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150)과 사회적 적응(.144)이 비교적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소득수준(.106)의 영향 또한 확인되었으나, 회귀식의 설명력은 약 8%에 불과하였다.

문화활동 참여에는 야외활동과 마찬가지로 문화적응 관련 두 변수와 사회경제적 특성만이 영향을 미쳤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약 13%로 나타났다. 언어적응(.170)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소득수준(.141), 교육수준(.134),

〈표 4〉 예측변인이 유형별 여가참여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       |        |                     |      |       |        |                      |      |       |        |
|-------------------------------------|----------------------|------|-------|--------|---------------------|------|-------|--------|----------------------|------|-------|--------|
|                                     | 야외활동 참여              |      |       |        | 운동 참여               |      |       |        | 문화활동 참여              |      |       |        |
|                                     | B                    | Beta | t값    | P값     | B                   | Beta | t값    | P값     | B                    | Beta | t값    | P값     |
| 사회적 적응                              | .275                 | .190 | 3.641 | .000** | .198                | .144 | 2.640 | .009** | .178                 | .133 | 2.494 | .013*  |
| 언어 적응                               | .142                 | .114 | 2.143 | .033*  | .087                | .074 | 1.330 | .184   | .196                 | .170 | 3.141 | .002** |
| 교육수준                                | .233                 | .163 | 3.457 | .001** | .205                | .150 | 3.061 | .002** | .178                 | .134 | 2.792 | .005** |
| 소득수준                                | .294                 | .191 | 4.157 | .000** | .155                | .106 | 2.203 | .028*  | .202                 | .141 | 3.023 | .003** |
| 자녀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편)나이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R <sup>2</sup> (R <sup>2</sup> ), F | .160(.152), 19.582** |      |       |        | .083(.075), 9.357** |      |       |        | .129(.120), 15.214** |      |       |        |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        |        |                      |       |        |        |                      |      |       |        |
|-------------------------------------|----------------------|-------|--------|--------|----------------------|-------|--------|--------|----------------------|------|-------|--------|
|                                     | 가정여가활동 참여            |       |        |        | 사교활동 참여              |       |        |        | 오락활동 참여              |      |       |        |
|                                     | B                    | Beta  | t값     | P값     | B                    | Beta  | t값     | P값     | B                    | Beta | t값    | P값     |
| 사회적 적응                              | .191                 | .203  | 3.781  | .000** | .165                 | .157  | 3.007  | .003** | -                    | -    | -     | -      |
| 언어 적응                               | .098                 | .121  | 2.183  | .030*  | .113                 | .125  | 2.367  | .018*  | .184                 | .216 | 4.490 | .000** |
| 교육수준                                | .121                 | .130  | 2.627  | .009** | .065                 | .062  | 1.224  | .222   | .145                 | .147 | 3.053 | .002** |
| 소득수준                                | .110                 | .109  | 2.299  | .022*  | .225                 | .200  | 4.364  | .000** | -                    | -    | -     | -      |
| 자녀 수                                | -.129                | -.137 | -2.790 | .006** | -                    | -     | -      | -      | -                    | -    | -     | -      |
| (남편)나이차                             | -                    | -     | -      | -      | -.266                | -.173 | -3.521 | .000** | -                    | -    | -     | -      |
| R <sup>2</sup> (R <sup>2</sup> ), F | .124(.113), 11.500** |       |        |        | .177(.167), 17.536** |       |        |        | .133(.118), 18.219** |      |       |        |

\*  $\alpha < .05$ , \*\*  $\alpha < .01$ 주: 괄호 안은 표준화된 R<sup>2</sup>, 수치가 없는 칸은 위계적 회귀분석과정에서 제외된 변수임

사회적 적응(.133)의 영향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정여가활동 참여에는 문화적응 관련 두 변수(사회적 및 문화 적응)와 사회경제적 특성 이외에 자녀 수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약 12%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203)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자녀 수(-.137), 교육수준(.130), 언어적응(.121), 소득수준(.109)의 영향력은 비슷하였다. 다른 변수와는 달리, 영향변수 가운데 자녀 수는 여가참여와 반비례의 관계로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정여가활동의 참여빈도는 감소하였다.

사교활동 참여에는 다른 대부분의 여가활동과 마찬가지로 문화적응 관련 두 변수(사회적 및 문화 적응)의 영향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소득수준만이 영향을 미쳤으며, 남편과의 나이차라는 기타 개인적 특성이 사교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약 18%로 비교적 높았으며, 변수의 영향력은 소득수준(.200), 남편과의 나이차(-.173), 사회적 적응(.157), 언어적응(.125)의 순이었다. 특히, 남편과의 나이차는 여타 변수와는 다르게 사교활동의 참여에 부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활동 참여에도 문화적응과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이 발견되었으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언어적응(.216)과 교육수준(.147)뿐이었다. 기타 개인적 특성 가운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가 없었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약 13%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를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에서는 사회적 적응과 언어적응이 각각 오락활동과 운동을 제외한 모든 여가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적응은 야외활동과 가정여가활동에 강한 영향을 미쳤고, 언어적응의 영향력은 문화활동과 오락활동의 참여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문화적응 지표 중 거주기간의 영향은 예상과는 달리, 어떠한 유형의 여가참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교육과 소득수준이 각각 사교활동과 오락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육수준은 야외활동과 운동, 그리고 소득수준은 야외활동과 사교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

기타 개인적 특성에서는 자녀 수, 그리고 남편과의 나이차가 각각 가정여가활동과 사교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자녀가 많고 남편과의 나이차가 클수록 가정여가활동이나 사교활동에 참여하는 빈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주여성 본인의 연령은 어떠한 유형의 여가참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증분석에 의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여성의 여가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이들은 가정여가활동과 사교활동을 비교적 즐겨하나,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은 자주 하지 않으며, 야외활동과 운동에 대한 참여는 중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여성들은 여가활동으로서 요리와 학습, 음악감상을 자주 하는 반면, 음주와 고스톱·카드놀이는 즐겨 하지 않았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는 사회적 압력을 피하기 위해 외부보다는 가정 내 여가생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Hibbler and Shinew, 2002; Stodolska, 2000). 차성란(2010)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여가는 대부분 집 안 및 집 주변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등 공간적 범위가 작다고 하였으며, 음악감상과 노래부르기, 인터넷, 요리를 이주여성이 가장 즐겨 하는 여가활동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본 조사의 결과는 다문화가족이 여행이나 노래방, 극장 가기 등의 문화활동보다는 외식을 자주 하는 편이라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7)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선정하기 위해 북미지역과 국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문화적응 수준 및 사회경제적 특성(교육·소득수준), 그리고 기타 개인적 특성(본인의 연령, 남편과의 나이차, 자녀 수)을 도출할 수 있었다. 문화적응 수준의 측정지표로는 언어능력과 국내 거주기간, 그리고 한국인과의 접촉과 같은 사회적 적응이 유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경제적 특성 지표 중 직업을 제외한 것은 이주여성 가운데 전일제 근로자가 많지 않고, 남편의 직업 또한 서비스나 단순노무직에 편중된 특

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편과의 나이차는 부부동반 외출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권유홍·고봉찬, 2011), 문화적응 유형의 분류에서도 통합유형에는 비교적 남편과의 나이차가 크지 않은 이주여성이 많지만, 11세 이상으로 나이차가 큰 경우 주변화유형이 많이 발견된다는 국내 조사결과(권유홍, 2011)를 반영한 것이다.

셋째, 예측변인이 실제 이주여성의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적응과 사회경제적 특성은 대부분의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타 개인적 변수의 영향력은 가정여가활동과 사교활동에서만 일부 발견되었다. 특히 문화적응 가운데 사회적 적응은 야외활동과 가정여가활동, 언어적응은 문화활동과 오락활동의 참여에 각각 강한 영향을 미쳤고, 사회경제적 특성 중 교육수준은 운동, 그리고 소득수준은 야외활동과 사교활동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개인적 변수에서는 자녀 수가 가정여가활동, 그리고 나이차가 사교활동에만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문화적응 측정지표 중 국내 거주기간, 그리고 개인적 특성 중 이주여성 본인의 연령은 어떠한 유형의 여가참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문화적응이 여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북미 지역의 경우 Floyd, Gramann, Stodolska 등 여러 학자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Kim and Lee(2010)와 권유홍(2011)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은 소수민족의 여가연구에서는 물론 야외 레크리에이션, 여가제약 분야 등에서

지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주 후 거주기간의 영향력이 없는 것은 본 조사가 북미지역의 연구보다 짧은 5년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분류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추정된다.<sup>11)</sup>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거주기간은 여가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Abraido-Lanza et al., 2005; Liu et al., 2009)와 그렇지 않은 사례(Evenson et al., 2004; Wolch and Zhang, 2004)가 있어 향후 추가 검증이 요구된다. 한편, 이주여성 본인의 연령이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본 연구의 경우 응답자의 80% 이상이 20대와 30대일 정도로 젊은 계층이 대부분이고,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대한 태도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없다는 국내 선행연구(권유홍, 2011; 김은미 외, 2009; 양옥경 외, 2007)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녀 수가 가정여가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녀가 생기고 늘어나면서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남편과의 나이차가 클수록 사교활동이 감소하는 것은 권유홍·고봉찬(2011)이 주장한 바와 같이, 남편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부인과의 외출을 꺼리는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권유홍(2011)의 연구에서도 남편과의 나이차가 11세 이상인 경우, 여가참여에 가장 소극적인 주변화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도시 거주 결혼 이민여성은 가정여가활동, 사교활동, 야외활동, 운동, 문화활동, 오락활동 순으로 여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문화적응 중 사회적 적응과 언어적응, 그리

11) 북미지역에서는 이민세대수(Liu et al., 2009)나 15~20년의 장기간(Abraido-Lanza et al., 2005; Wolch and Zhang, 2004), 또는 이를 혼용한 기준을 사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전국실태조사(김승권 외, 2010)에 따라 5년 미만과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고 사회경제적 특성 가운데 교육과 소득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 및 남편과의 나이차는 소수 여가활동에 제한된 영향을 미치며, 국내 거주기간과 본인의 연령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주여성의 여가 복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주여성의 여가참여 실태를 고려한 행사 기획 및 다문화센터 여가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 오락활동을 제외하면, 이주여성은 문화활동과 운동, 야외활동을 자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유홍(20011)에 따르면, 이주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활동은 야외활동이다. 따라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생색내기식 일회성 행사보다는 아름다운 길 걷기, 가족캠핑 등 남편, 자녀와 함께 야외에서 적극적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여성이 가장 즐겨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요리와 음악감상인 만큼 요리와 노래 경연 등 출신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갖는다면 이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또한 중요하다. 이주여성의 대부분은 가구 소득이 비교적 낮고, 자녀는 어리며, 남편과의 나이차가 크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보육을 위한 인력, 시설의 확충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 거주기간이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주여성의 여가문제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적응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며, 한국인과의 접촉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론 한국어 습득에도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다문화센터는 시민단체 및 지역의 대학, 부녀회 등과 연계해 이주여성이 한국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주여성의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가 대부분 서울과 경기, 충청의 다문화센터에서 이루어져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고, 여가참여 수준의 측정도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문헌연구를 통해 문화적응, 사회경제적 특성 등 여러 가지 변인을 도출하고 이주여성의 여가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그 설명력이 낮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계적 특성(남편 또는 시 부모와의 관계 등), 사회적 지지, 개인의 성격, 자기효능감, 차별에 대한 지각 등 이주여성의 여가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념들을 활용해 보다 정교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 권유홍, 2011, “문화접변유형에 따른 결혼이민여성의 여가 활동 선호 및 참가 비교 연구”, 『관광학연구』, 35(6): 315~341.
- 권유홍·고봉찬, 2011, “결혼이민여성의 여가제약과 발생 원인 고찰”, 『관광연구논총』, 23(1): 27~48.
- 김병조·김복수·서호철·오만석·은기수·정미량·정

- 재기·조동기, 2011, 『한국의 다문화상황과 사회통합』,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미·양옥경·이혜영, 2009, 『다문화 사회, 한국』, 서울: 나남.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2008 여가백서』.
- 박은미·이근수, 2009,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 적응: 여성결혼이민자의 사례”, 『한국행정논집』, 21(2): 407~429.
- 설동훈·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송영민·황희정·권유홍, 2011,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고찰한 결혼이주여성의 여가 분석”, 『관광레저연구』, 23(4): 407~426.
- 심재명, 2009, “국내이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가에 대한 연구”, 『관광연구』, 24(3): 339~357.
- \_\_\_\_\_, 2011, “국내이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가에 대한 연구: 민족과 여가계약의 관점에서”, 『관광학연구』, 35(5): 169~194.
- 양옥경·김연수·이방현, 2007, “서울 거주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도시연구』, 8(2): 229~251.
- 윤인진·김상운, 2005, “여가활동의 사회집단별 차이와 불평등”, 『사회과학연구』, 3(2): 162~202.
- 이학식·김영, 2001, 『SPSS 10.0 매뉴얼』, 서울: 법문사.
- 차성란, 2010, “결혼이주여성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정 여가생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795~812.
- 최병두·임석희·안영진·박배균, 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서울: 푸른길.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경미·황덕순, 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기 자녀를 가진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69~82.
- 호남대학교다문화교육센터, 2008, 『창조적 다문화 시민사회 조성방안 연구』.
- Abraido-Lanza, A., Chao, M. and Florez, K., 2005, “Do healthy behaviors decline with greater acculturation?: Implications for the Latino mortality paradox”, *Social Science & Medicine*, 61: 1243~1255.
- Arai, S. and Kivel, B., 2009, “Critical race theory and social justice perspective on whiteness, difference(s) and (anti)racism: A fourth wave of race research in leisure stud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1(4): 459~470.
- Barnett, L., 2006, “Accounting for leisure preferences from within: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gender, race or ethnicity, personality, affective style, and motivational orient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8(4): 445~474.
- Barry, D.,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 *Journal of Immigration Health*, 3(4): 193~197.
- Berry, J.,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Chum, P. Organista and G. Marin(Ed.),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17~38,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ultena, G. and Field, D., 1978, “Visitors to national parks: A test of the elitism argument”, *Leisure Sciences*, 1(4): 395~409.
- Carr, D. and Williams, D., 1993, “Understanding the role of ethnicity in outdoor recreation experienc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5(1): 22~38.
- Carroll, B. and Alexandris, K., 1997, “Perception of constraints and strength of motivation: Their relationship to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in Gree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3): 279~299.
- Chia, A. and Costigan, C., 2006, “A person-centered approach to identifying acculturation groups among Chinese Canadian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1(5): 397~412.
- Crawford, D., Jackson, E. and Godbey, G., 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4): 309~320.
- Crespo, C., Smit, E., Carter-Pokras, O. and Anderson, R., 2001, “Acculturation and leisure-time physical inactivity in Mexican American adults: Results from NHANES III, 1988~1994”,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8): 1254~1257.
- Evenson, K., Sarmiento, O. and Ayala, G., 2004, “Acculturation and physical activity among North Carolina Latina immigrants”, *Social Science &*



- Medicine*, 59: 2509~2522.
- Floyd, M., 1998, "Getting beyond marginality and ethnicity: The challenge for race and ethnic studies in leisure resear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1): 3~22.
- Floyd, M. and Gramann, J., 1993, "Effects of acculturation and structural assimilation in resource-based recreation: The case of Mexican America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5(1): 6~21.
- \_\_\_\_\_, 1995,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in a recreation contex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2): 192~199.
- Floyd, M. and Shinew, K., 1999,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leisure style among whites and African Americans: Toward an interracial contact hypothesi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1(4): 359~384.
- Floyd, M., Bocarro, J. and Thompson, T., 2008, "Research on race and ethnicity in leisure studies: A review of five major journal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0(1): 1~22.
- Floyd, M., Gramann, J. and Saenz, R., 1993, "Ethnic factors and the use of public outdoor recreation areas: The case of Mexican Americans", *Leisure Sciences*, 15: 83~98.
- Floyd, M., Shinew, K., McGuire, F. and Noe, F., 1994, "Race, class, and leisure activity preferences: Marginality and ethnicity revisited",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2): 158~173.
- Freysinger, V. and Harris, O., 2006, "Race and leisure", In C. Rojek, S. Shaw and A. Veal(Ed.), *A Handbook of Leisure Studies*, 250~270, Palgrave Macmillan.
- Gomez, E., 2002, "The ethnicity and public recreation participation model", *Leisure Sciences*, 24: 123~142.
- Gramann, J. and Allison, M., 1999, "Ethnicity, race, and leisure", In E. Jackson, T. Burton and T. Burton (Ed.), *Leisure Studies: Prospect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283~297, Pinnacle Books.
- Gurung, R. and Mehta, V., 2001, "Relating ethnic identity, acculturation, and attitudes toward treating minority cli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7(2): 139~151.
- Hibbler, D. and Shinew, K., 2002, "Interracial couples' experience of leisure: a social network approa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2): 135~156.
- Hosper, K., Klazinga, N. and Stronks, K., 2007, "Acculturation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increased physical activity during leisure time: A cross-sectional study among Turkish young people in the Netherlands", *BMC Public Health*, 7: 230.
- Iso-Ahola, S., Jackson, E. and Dunn, E., 1994, "Starting, ceasing, and replacing leisure activities over the life-spa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3): 227~249.
- Johnson, C., Bowker, J., English, D. and Worthen, D., 1998, "Wildland recreation in the rural South: An examination of marginality and ethnicity theor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1): 101~120.
- Juniu, S., 2000, "The impact of immigration: Leisure experiences in the lives of South American immigra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2(3): 358~381.
- Kelly, J., 1980, "Outdoor recreation participation: A comparative analysis", *Leisure Sciences*, 3: 129~154.
- Kim, J. and Lee, H., 2010, "The relationship among acculturation, self-esteem, and leisure participation of foreign worker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10(1): 45~60.
- Lee, J., Scott, D. and Floyd, M., 2001, "Structural inequalities in outdoor recreation participation: A multiple hierarchy stratification perspectiv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3(4): 427~449.
- Liu, J., Probst, J., Harun, N., Bennett, K. and Torres, M., 2009, "Acculturation, physical activity, and obesity among Hispanic adolescents", *Ethnicity & Health*, 14(5): 509~525.
- Livengood, J. and Stodolska, M., 2004,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and constraints negotiation on leisure behavior of American Muslims in the post-september 11 America",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6(2): 183~208.
- Redfield, R., Linton, R., and Herskovits, M., 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 Riddick, C. and Stewart, D., 1994, "An examination of the life satisfaction and importance of leisure in the lives of older female retirees: A comparison of

- balcks to whit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1): 75~87.
- Rublee, C. and Shaw, S., 1991, "Constraints on the leisure and community participation of immigrant women: Implications for social integration", *Loisir et Societe*, 14: 133~150.
- Shaull, S. and Gramann, J., 1998, "The effect of cultural assimilation on the importance of family-related and nature-related recreation among Hispanic America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1): 47~63.
- Shinew, K., Stodolska, M., Floyd, M., Hibbler, D., Allison, M., Johnson, C. and Santos, C., 2006, "Race and ethnicity in leisure behavior: Where have we been and where do we need to go?", *Leisure Sciences*, 28: 403~408.
- Son, J., 2008, "Do age and gender matter in the constraint negotiation of physically active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0(2): 267~289.
- Stamps, S. and Stamps, M., 1985, "Race, class and leisure activities of urban resid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 40~56.
- Stodolska, M., 1998, "Assimilation and leisure constraints: dynamics of constraints on leisure in immigrant popula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4): 521~551.
- \_\_\_\_\_, 2000, "Changes in leisure participation patterns after immigration", *Leisure Sciences*, 22: 39~63.
- Stodolska, M. and Alexandris, K., 2004, "The role of recreational sport in the adaptation of first generatio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6(3): 379~413.
- Walker, G. and Kiekolt, K., 1995, "Visitors to national parks: Social class and wilderness use", *Leisure Sciences*, 17: 295~308.
- Washburne, R., 1978, "Black underparticipation in wildland recreation: Alternative explanations", *Leisure Sciences*, 1: 175~189.
- Wolch, J. and Zhang, J., 2004, "Beach recreation, cultural diversity and attitudes toward nat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6(3): 414~443.
- Woodard, M., 1988, "Class, regionality, and leisure among urban black Americans: The post-civil rights era",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 87~105.
- Yu, P. and Berryman, D., 1996,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acculturation and recreation participation of recently arrived Chinese immigrant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 251~273.

원 고 접 수 일 : 2011년 8월 29일  
1차심사완료일 : 2011년 9월 23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1년 10월 17일